

부산성모병원

▶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기념' 완화의료



10월 1일~31일 제2회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진전을 열어 본원1층 로비에서 호스피스 관련 사진 30점을 전시하였다.



10월 8일(토) 12:30~18:00 제1회 완화의료 심포지엄을 4층 베네딕도 홀에서 실시하였다. 직접 호스피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장감 넘치는 경험 위주의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230여명의 호스피스 종사자 및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10월 14일(금) 10:30~16:00 사별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4층 성당 및 베네딕도홀에서 2011년 사별 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 헌화, 식사, 공연(오카리나 연주), 웃음치료 강의(이성구 웃음바다 연구소 소장), 동영상 상영, 고인에게 편지 쓰기 및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기 등으로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 호스피스 후원금 마련을 위한 기증품 코너 바자회!



11월 15일 10:00~16:00 4층 베네딕도홀에서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쓰고 바꾸어 쓰고'라는 슬로건을 걸고 호스피스 환우를 위한 기금마련 아나바다 바자회를 실시했다.

병원 모든 직원들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고 또 남들이 내 놓은 물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여 거기서 생긴 이익금 전부는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성모병원

▶ 호스피스개설 17주년 기념미사 및 다과



9월 7일 호스피스개설 17주년을 맞이하여 이용희 원목실장신부님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진행하였다. 호스피스팀은 물론 사회사업팀, 원목팀 수녀님께서 참석 해 주셨다.

▶ 대전교구 내포지방 성지순례



10월 13일 충청도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호스피스팀은 3시간 도보 성지순례를 하였다. 침묵하면서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 기타 소식

본원에서 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을 10월 26일 오전 9시-오후 5시 실시하였다. 주로 외부 간호사를 중심으로 65명이 수료하였고 호응이 좋아 2012년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별가족 소모임은 월 1회 하고 있고 11월 4일 2010년 10월 1일- 2011년 9월 30일까지 임종한 180가족을 초대했으나 34가족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1월 23일 자원봉사자 정기총회가 열려 신임회장으로 김광백 비오형제가 선출되었다.

서울성모병원

▶ 변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감사하며

2011년 9월 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변화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16병상에서 23병상으로 증설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은 1980년대 초창기 호스피스병동 개원을 추진했던故 김수환 추기경님



이 선종하신 별관 6층에 자리 잡았기에 새로운 시작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사하기 전날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호를 딴 ‘웅기뜨락(실내정원)’에서 축성식을 했고, 9월 15일에는 새로운 병동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이어 11월 22일에는 병동 이전을 기념하며 전직 센터 팀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역사 속에 거쳐 간 분을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마련하여 새로 단장한 병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복 안에서 새 병동의 출발을 이어갈 수 있었다.

▶ 2011년 11월 17일 전체 사별가족모임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병동에서 임종한 가족을 초대하는 전체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예식이 진행되었고, 몇 개월간 갈고 닦은 봉사자의 공헌과 그룹 나눔은 사별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봉사자가 준비한 따뜻한 밥과 국을 비롯한 음식들, 의료진이 만든 샌드위치, 간호사가 짠 김밥 등 호스피스병동 팀원이 손수 만든 음식들을 대접하였고, 사별가족은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

▶ 사별가족 모임

11월 17일 사별가족(해바라기)모임 및 위령성월을 맞아 사별가족과 본 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가족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다.

1부는 사별가족(해바라기)모임을 본 센터에서 2시간



동안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먼저 떠난 가족에게 남은 가족의 마음을 편지로 쓴 종이비행기를 센터 트락에 날려 보냈고

2부는 최진국 시몬 신부님이 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성당에서 사별가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과 함께 위령미사를 봉헌하였다.

3부는 미사 후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김점옥 간호사의 진행으로 사별가족, 봉사자들이 센터뜨락에 모여 다 함께 노래하고 다과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성바오로병원

▶ 암으로 가족 잃은 슬픔, 함께 모여 극복합니다



11월 11일,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총 3부(마음풀기·마음나누기·마음보내기)로 진행됐다.

이번 사별가족모임에 참가한 참가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인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일본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학생들,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방문



9월 8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일본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우수한 복지전

문가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이 한국 호스피스센터 모범 운영사례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현주 UM수녀 인솔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라운딩이 진행되었고 이어 이선영 사회사업가가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방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미술, 원예치료, 사별가족모임 등, 환자들과 그 가족까지 배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척 인상 깊었다. 삶의 마지막을 이곳,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보낸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향기로, 마사지로 환자 치유해요

10월 5일 별관 7층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대상, 환자들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아로마테라피스트 지도 아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마사지 실습 교육과 아로마오일이 환자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 피부 건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이뤄졌다.

성빈센트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워크샵

10월 14일~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팀(대학제간)원



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10주년을 맞이하여 서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노고를 함께 다독이며 다시금 힘을 내자는 워크샵이 있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환우들이 팀원들의 곁을 떠나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슬픔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 슬픔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면서 그동안 소진되었던 팀원의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나눔과 친교, 단합을 위한 이번 워크샵에서 얻은 즐거움과 동료애는 팀원간을 화합으로 이끌어 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환우 소원 들어주기

11월 29일 31세 간암말기 환자의 생애 마지막 가족 여행을 용인 에버랜드로 떠났다.

7살, 3살의 딸들에게 아빠와 함께한 사랑의 시간을 동영상으로 남겨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 전남지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참여



광주·전남 호스피스완화의료지회에서는 전남 지역 암센터 주체로 지난

10월8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

전남 호스피스완화의료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광주 유스케어(터미널)광장에서 11시~오후 2시까지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행사에 사진전 시회 및 리플릿, 홍보물을 배부하며 호스피스 홍보 행사를 가졌다.

▶ 제13회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



11월 25일에 지난 1년 여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별한 가족들을 초대하여 사별가족모임 및 추

모제를 가졌다. 모임 참여수가 적어 이번엔 각별히 문자메세지와 전화방문을 통하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결과 많은 사별가족들이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동영상 상영과 추모 연주회, 식사시간, 레크리에이션 및 마음표현이란 시간속에 사별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다음 추모제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속에 호스피스 팀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추모제가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익산성모병원

▶ 일반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지역사회 일반인들을 위한 제3기 호스피스교육이 익산성모병원에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있었다.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68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66명이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식을 갖고,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또 새롭게 호스피스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기존 호스피스봉사자와 더불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사별가족 모임



한 해 동안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시다 돌아가신 연령들을 위한 미사와 사별가족모임이 있었다. 사별가족 6가족이 참석하시어 봉사자들과 함께 미사와 나눔, 다과시간을 갖고 아픔을 극복해가며 희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호스피스

▶ 봉사자 심화교육



봉사자 45명이 11월 4일~11월 5일 심화교육의 일환으로 지리산 피아골 피정 집에서 피정을 하였다. 강길웅 신부님의 지도로 강론과 미사, 야외활동으로 좋은 영적 성숙과 풍요로움으로 깊은 내면의 감명과 감동을 받고 봉사자 모두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피정 일정의 일환으로 이틀째는 삼성산 연곡사와 노고단을 등반하여 지리산의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과 정취를 만끽하였다.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 제11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2011년 심화교육



9월 29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층 대강당에서 제11회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과 2011년 심화교육이 전국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이인우 팀장의 사회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특강에는 부산웃음바다연구소 소장인 이성구박사가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강의로 인간관계에 윤희유같이 필요한 유머와 웃음의 소재를 유쾌한 강의로 알려주셨고 전국 각 기관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추천되신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로상을 수상 받아 그간의 수고를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축사는 김석영 대전성모병원 의무원장님이, 미사는 박중훈신부님이 집전해 주셨다.

▶ 2011년 완화의료주간 가톨릭호스피스 홍보 행사



10월 8일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날을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2011 '완화의료 주간」 행사에 본 협회도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가정호스피스, 성빈센트병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개설하여 참관자들과 함께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문제를 풀어보고 호스피스 협회지 및 홍보유인물 배포와 물건판매 등을 하였다.

▶ 2011년도 기관대표자 회의



12월3일 합정동 전.진.상교육관에서 2011년도 기관대표자회의가 전국 41개 기관 중 기관대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평생교육원 정연교수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방안”에 대한 강의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기관들의 사례와 구축방안을 듣고 그룹별로 토의를 가진 후 각기관의 호스피스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의 발표시간을 가졌으며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서로서로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그 외에 협회 활성화와 2012년 정기총회 준비건도 논의 되었으며 지영현 지도신부님의 미사로 회의를 마쳤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 부천성모병원 : 이길수, 왕인숙, 이혜란, 조선행, 황경아
- 광주보훈병원 : 장경숙
- 성바오로병원 : 오은숙, 박희민, 이선영, sr.신정옥
- 고대구로병원 : 곽지현
- 창원 파티마병원 : 김인숙, 김미나, 이정미

▶ 후원회 신입회원

신현수, 장정윤, 이경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가톨릭호스피스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